

목포대, 인공지능 기반 양식업 첨단산업화 '속도'

국립목포대학교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만든 '아쿠아비스'(AQUAVYS)를 세계 무대에 선보였다. 9일 국립목포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산·학·연·관 컨소시엄이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개발한 스마트양식 플랫폼 'AQUAVYS'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 목포대가 주관한 컨소시엄은 올해 초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 2026'에 참가해 국내 스마트 양식의 기술력을 선보인 데 이어, 최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의 양식 박람회에 참석했다.

목포대는 세계양식학회가 주관하는 'World Aquaculture Singapore 2026'에도 참가해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기술홍보와 협력 확대 활동을 펼쳤다. 이번 전시회에서 목포대 컨소시엄은

스마트양식 플랫폼 'AQUAVYS' 개발·국제무대 소개 벨기에·덴마크 등 글로벌 기업과 기술협력 업무협약

별도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AI 기반 맞춤형 양식 지원 플랫폼을 집중 소개했다. 'AQUAVYS'는 기존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던 양식 방식을 개선하고자 양식 어류 중심의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양식 플랫폼으로 개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민들은 국내 주력 양식종인 넙치의 생육 관리부터 질병 예측, 최적의 출하 시기 결정에 이르기까지 양식 전 과정을 'AQUAVYS'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AI 도우미' 기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실시간 분석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생산성 향상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전시 기간 동안 세계 각국의 양식 산업 관계자와 연구기관, 바이어들은 'AQUAVYS'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과 AI 활용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 같은 홍보 성과는 세계적인 스마트 양식 선도 기업들과의 실질적인 기술 협력으로 이어졌다. 목포대 컨소시엄은 전시회 현장에서 벨기에의 'INVE Aquaculture', 덴마크의 'UltraAqua'와 국내



목포대 산·학·연·관 컨소시엄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개발한 스마트양식 플랫폼 'AQUAVYS'의 세계화에 나섰다.

의 양식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은 INVE Aquaculture와 UltraAqua의 기술과

기술력과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경험 중심의 전통 양식업을 데이터와 AI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대한민국 스마트양식 기술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대가 총괄하는 이번 컨소시엄에는 제주대, 국립부경대 연구진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남해양수산연구원, 제주해양수산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공동조합, 명선해양산업, 케이웨이, 플렉싱크, 빛가람정보 등 수산·ICT·정책 분야 기관과 기업도 함께 참여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해남,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기회 확대한다

7~18세 한국 국적 자녀 대상·연간 최대 60만원 지원

해남군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과 진로 역량 개발을 위해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국내 거주 다문화 가족의 한국 국적 자녀로서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자녀이다. 연령은 7~18세(2008~2019년생) 자녀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도 포함해 지원한다.

지원비용은 초등학생(7~12세) 연 40

만원, 중학생(13~15세) 연 50만원, 고등학생(16~18세) 연 60만원을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신분증과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해 다문화가족의 부모, 자녀, 3촌 이내의 혈족이 해남군가족센터(061-534-0017)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에 선정되면 8월말까지 NH농협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교육활동비 카드포인트 사용 범위는 학업활동으로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진로활동으로는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 교육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 유증·사행업증, 위생·레저 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사업은 다문화 가정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220명의 자녀에게 1억7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민선 9기 장흥군수로 당선된 조국혁신당 사순문 당선인이 균형 인수인계와 균형 방향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사순문 장흥군수 당선인 인수위 공식 출범

'뉴 장흥정책협의회' 위원장에 임두택 전남대 교수 위촉 6개 분과 15명 위원 구성·민선9기 균형방향 청사진 마련

민선 9기 장흥군수로 당선된 조국혁신당 사순문 당선인이 균형 인수인계와 균형 방향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뉴(NEW) 장흥정책협의회'는 사순문 당선인이 장흥군과의 협의를 거쳐 옛 광주은행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사순문 당선인은 협의회를 함께 이끌어갈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새로운 도약, 확실한 변화'를 슬로건으로 내건 정책협의회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임두택 전남대 명예

교수(전 전남대 행정대학원장·인사혁신처 정책위원장)를, 부위원장에 윤승중 전 장흥군 부군수를 위촉했다. 정책협의회 산하에는 총 6개 분과위원회를 뒀다.

정책협의회는 앞으로 공약사항 검토·실·과·소 업무보고, 각급 사회단체 간담회, 지역 현안 정밀 점검 등을 통해 중점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백서 발간과 운영 정산 등을 거쳐 7월 10일까지 활동을 이어간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311@gwangnam.co.kr

신안, 지속가능한 바다 만들기 총력

다이아몬드 제도 해역 쥐노래미 18만마리 방류

신안군은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바다 만들기에 집중하며 최근 쥐노래미 18만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쥐노래미는 전장 5cm 이상이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염병 검사를 마친 건강하고 활력이 좋은 종자로, 해당 지선 어촌계(어업인)와 함께 선

상 방류를 실시했다. 방류 해역은 2022년부터 5년간 50억원(연간 1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쥐노래미 산란·서식장을 조성 중인 해역으로, 지금까지 어초(593개) 투하와 종자방류(55만 마리), 해조류(곰피, 다시마 등)를 집중 이식해 놓은 해역이다.

쥐노래미 산란·서식장 조성은 올해 마지막 5년 차로 오는 7월 중 추가적인 종자 방류(21만마리)와 함께 조성지구 내 어획 조사, 환경개선(폐기물 수거)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근해역 하의 옥도와 안좌 사차해역 조피불락(2023~2027년, 40억원)과 암태 추포해역 불락류(2026~2030년, 40억원) 산란·서식장 조성하는 등 다이아몬드 해역 내 수산자원 회복·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아카데미홀 임대

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광남일보 사옥 1층)

스크린 및 음향 최고시설 완비

교육연수, 연회, 세미나 등

시설 사용인원(최대) : 150명





임대문의 : 062)370-7080

